

與, 국정원에 MB정부 사찰 피해 문건 일체 요구

정보위 전체회의...광주·전남 전 단체장 4명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박지원 국정원장 "진상 조사"...국민의힘 "60년 역사 함께 청산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MB정부 시절 다른 특정 문건도 제출 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MB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 을 비롯해 광주·전남 5명의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야당(무소속 포함) 소속 단체장 31명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 19일자 1·3면, 22일자 1·3면)

정보위 여당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사찰 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9년 12월 16일 이후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신상자료 명단과 목록, 18~19대 국회 시기에 재직된 지자체장·지방의원 에 대한 신상자료 일체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 확인 상황을 질문했지만 큰 진척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한 것이 아닌 만 큼 국정원의 소명 의지를 확인하며 위원회 추가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직을 출범해 진상조사를 하겠다. 성과가 나오 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 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60년 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중 정치개입 드라이브"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정보 공개를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전에 선행될 것은 60년 역사에 대한 정보 공개 총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공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의 사찰 개입 여부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 생산 보고서가 보통 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무수석실, 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은 발견했다 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 의원은 "박 전 수석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다. 하 의원은 "18대 의원을 지낸 2명의 문건을 봤는 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내용도 있는 것을 확인했

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이전 정보가 있다는 것만 으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박범계 "검찰 인사,靑·대검과 충분히 소통"

법사위 업무보고...신현수 민정수석 업무 복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 부급(차·부장검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든 대검 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또 고위간부급 인사를 발표 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했다. 청와대 발표로 같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성질은 못 된다"며 "저 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 그 이상도 그 이하 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며 특별히 제가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8일부터 나 홀 동안 휴가를 다녀온 신 수석은 이날 자신의 거취 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청와대에 복귀했다.

정기권에서는 신 수석이 유임되면서 상황이 정리

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잠깐의 시간을 가진 뒤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 론도 제기된다. '사퇴'를 고수하던 신 수석이 이처 럼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레인 덕 조짐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생각보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권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적인 설득 작 업을 펼친 것도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 측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거 치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았고 민정수 석실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청와대 민정 라인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선 후보 보류

전남도당 공천심사 결과 발표...고흥 박선준, 보성 조영남·박정욱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 원회(위원장 김한중)는 22일 "고흥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42)를 단수 공천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고흥 출신의 프 로테슬러고(故) 김일 선수 외손자로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다.

공천 후보자 선정은 당선 가능성(적합도 여론조 사·40%)과 도덕성(20%), 업무수행 능력 (20%), 정체성·기여도(20%)를 종합 합산해 1, 2 위 간 격차가 심사총점 30점(적합도 조사 20%)

이상 벌어지면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 다고 도당 공천위 관계자는 부연했다.

조영남(여·59), 박정욱(65) 후보가 나선 보성군 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25일 도당 선관위 회의의 통해 경선 일정 이 확정 되는대로 최종 공천 후보자를 가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정병 회(58), 주윤식(60)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문상욱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신임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에 문상욱 동구남구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안을 원안결 했다.

광주시당은 장기간 공석이던 시당위원장이 임명 됨에 따라 지역위원장(광주 5곳 공석) 공모에 들어 가는 등 본격적인 당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조속히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총과업 발언 최대집 의사협회장 대국민 사과해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이 22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대한 의 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 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 해 백신 접종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 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 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 루라도 빨리 지나간 인고 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 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고, 백신 접종이 성 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 기관, 온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감 있 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정부에 '4차 지원금 대상 농수축산인 포함' 건의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 원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족전염병 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농 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임용제한으로 인한 인 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



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 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 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 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000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4차 재 난지원금 대상에서라도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입주까지 6천만원

양동 현대

브랜드 최고 입지 최고

총 619세대 중

320세대 모집

34평 / 계약금 2700만원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 도보 5분거리
- 양동시장역
- 금남로5가역
- 원스톱 교육
- 스마트시스템아파트

※ 코로나19로 홍보관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꼭 미리 연락주세요!

1800-1548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9㎡(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